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11.30.(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7인(안호림, 김희중, 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11월에도 국내외 굵직굵직한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통과 공론장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는 사회 분야를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이 있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황의조 선수가 여성과 접촉한 영상물이 SNS에 무단 유통되고 또 유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보도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배우 이선균 사건의 경우에도 잇따른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명인이라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이 포함된 사인 간 다툼이 있다면 그러한 다툼을 보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선정적 보도 관행에 대해 공영언론 연합뉴스TV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인에 대한 타블로이드식 사생활 보도는 공영 언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뉴스 가치와 사생활 문제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기사화가 되지 않죠.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있는 거고 기사화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사생활까지 불법 행위 혐의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것은, 선정성을 통한 기사 팔이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비교적 그런 데 대해서 보도를 자제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담 같은 데서 리포트나 단신과는 달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취급하다 보니까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패널들에게 주의를 해달라고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널리즘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소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서면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건, 출발 600 남자 진행자 이정섭 아나운서에서 황인성 앵커로 바뀌었는데 홈페이지는 그대로입니다. 뉴스 화면은 황인성인데 홈페이지 정보는 이정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정 확인 필요하며 다른 프로그램도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제보'에 제보 영상 관리가 4월 이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제보한 영상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면 연합뉴스TV를 더 열심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다른 시청자에게도 최신 영상을 업로드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도내용 건, 11월 6일 10시35분 한국탁구 WTT 챔피언스 8강 탈락 관련 한국 선수 '전멸'로 표현했는데, 가령 '전패'로 등의 적절한 단어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에 아나운서가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곧바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총괄부와 홈페이지 담당 부서 간에 제대로 연락이 안된 것인지, 연락은 됐어도 홈페이지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 늦게 처리가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10명의 디지털 인력이 제작도 하고 뉴미디어 사업도 하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보 영상이 제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구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 관리가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TV 시청률을 올리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저희가 시청자, 특히 젊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인력을 늘려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탁구 8강 탈락했을 때 전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기사에서도 전쟁 용어를 쓰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다양성이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뽑기 위해서 어쩌다 이렇게 전쟁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잦다 보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홈페이지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회사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인순 위원

- [현장의재구성] 연봉 70억 온라인 메시 출격...e월드컵 '월드컵'의 모든 것!, e스포츠계 월드컵으로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월드컵' 결승이 19일 고척에서 열립니다. 온라인 메시, 연봉 70억 원의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T1팀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 화려한 개막식과 e스포츠 최초 광화문 거리응원전 등이 예정,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자인 LoL + FIFA 월드컵 급의 인기= 월드컵,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 예전 스타크래프트 게임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세상의 흐름에 대해 실감할 수 있는 기사로 컴퓨터,

온라인상 게임을 통해 연봉 70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과 새로운 세상(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등)에 대해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해 준 기사였습니다.

- [출근길 인터뷰] 갑자기 겨울로..."너무 이른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2023-11-16 09:53:49.
겨울철 이른 새벽 운동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배경 영상 2':46" - 2':50" / 3':18"-3':36" 똑같은 배경 영상이 반복되어 기사의 신선함과 준비성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출근길 인터뷰가 생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그림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대개 사무실이나 회사 안에서 진행이 되다보니 밑그림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썼던 밑그림을 다시 돌려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저희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가급적이면 좀 길게 밑그림을 준비해서 똑같은 영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롤드컵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미처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앞으로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서면제출)

-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점자블록 없는 인도' 문제점 지적에 공감...다만 해당 지자체 취재통해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 질문했어야, 지난 11.12일 일요와이드에선 '따라 건다보니 위험천만 도로...가려진 장애인의 눈'이라는 제하에 점자블록이 없는 인도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곳인지 고발하는 뉴스였음. 무엇보다 기자가 점자블록 없는 인도를 시각장애인과 직접 동행 취재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리포트해 매우 인상적이었음. 인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도로는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없는 인도, 차도와 가까이 설치된 점자블록 등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 보고 있지만 마치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좋은 뉴스였음. 다만 뉴스의 리포트 구성은 다소 아쉬운 감도 있었음. 이 뉴스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넘어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뉴스임에도 강력한 대책 마련보다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위험한 외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감성적인 갈무리로 고발성 기사로서는 다소 미지근한 마무리로 끝났기 때문임. 따라서 리포트에서 지난 2년 동안 점자블록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잦았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했던 만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취재를 통해 '지난 2년간 민원 지속에도 조치가 안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을 함께 보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점자 블록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리포트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게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2년 동안 조치가 안 됐느냐 향후 어떻게 지자체에서 조치를 할 거냐 이 문제까지는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리포트는 1분 반에서 2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넣으려면 리포트를 2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미진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자체에서 왜 그동안 조치가 안 됐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추가 취재해서 리포트로 만들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11월 03일 "모욕·성희롱 논란 '교원평가'...전면 개편 착수", "모욕·성희롱 논란 '교원평가'...전면 개편 착수" 라는 제목은 교원평가 제도의 기본 취지인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본연의 교육평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볼 때에 '모욕과 성희롱의 논란'을 만드는 평가 제도이구나'라고 잘 못 인식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평가의 대상이 교사인데 이를 대변하는 전교조 교사와 교총 소속의 교사들의 의견만 방송하는 것은 한쪽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교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각 언론 매체들은 이들의 요구사항들을 정제하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 특히 11월 03일 보도한 연합뉴스TV의 "모욕·성희롱 논란 '교원평가'...전면 개편 착수" 기사제목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교원평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파악을 하고 기사 제목을 정하였으면 그런 기사 제목을 뽑지 않았을 것이다. 평가의 대상인 교사들은 교원평가 제도가 그들의 행동에 제약사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체를 없애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교원평가 제도를 폄하하기 위한 "모욕·성희롱" 등 강한 어조로 어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취재를 해야 한다.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 활동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평가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각 인터뷰와 의견을 물어보았어야 한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는 전교조와 교총단체의 의견만 방송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인터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청자들이 교원평가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은 한쪽만 대변하는 불공정한 방송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영방송으로서 연합뉴스TV는 항상 중립성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서는 힘의 논리에 부합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의 뉴스를 정확히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 연합뉴스TV 임하경 기자의 [날씨속 과학속] 마약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칠까...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일상 속 궁금했던 날씨와 과학 현상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날씨속 과학속'의 프로그램 편성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영상자료를 통하여 기자의 설명과 신뢰성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었다고 본다. 보도를 전문하는 연합뉴스TV에서 과학전문 기사를 통한 일상 속에서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과학정보를 '날씨속 과학속'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과학적 지식 정보 전달을 하는 아이디어는 아주 참신한 것 같다. 아직 프로그램 편성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시청률이 낮지만, 1개월 남짓 제작된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임하경 기자가 진행하는 '날씨속 과학속' 편성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 및 SNS 등에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사실 교사들이 모욕이라든가 성희롱 문제를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원들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것이구요. 그렇다 보니까 제

목을 교사하고 행사를 개최한 교육부에 중점을 맞춰서 달았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원 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인 교사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찬성하지는 않겠죠. 여기에 요즘 교권 확립에 대한 또 바람도 불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편승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에 제가 교육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전달하겠습니다.

- 날씨속 과학속 방송은 재밌는데 왜 클릭수가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가끔씩 보면 왜 안 나올지 알쏭달쏭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방송에 잘 먹히는 콘텐츠라고 해서 반드시 유튜브라든가 모바일에서 잘 먹히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수요가 큰 형식과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이 좋으면 모바일에서도 많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날씨속 과학속은 왜 이렇게 모바일이나 유튜브 쪽에서 별로 선택을 못 받는지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모바일이나 유튜브에 올릴 때는 거기에 맞게 편집을 하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11월 12일 일요와이드 '학교폭력 발생하면 어떻게?...체험형 뮤지컬로 예방한다'에서 달라지는 서울 시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 사이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진행된 공연에 학생들의 직접 참여가 더해진다는 보도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극단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공연하고, 특정 상황에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배우들과 상황극을 함께 함으로써 듣기만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소개한 것은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체험형 뮤지컬 방식의 교육을 통한 공감 효과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은 적절한 인터뷰였습니다.

- 11월 9일 뉴스현장에서 '신체에 맞게 크기 조절되는 햅틱 장치 개발'이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보도였습니다. 개발한 착용형 햅틱 장치는 슈트가 사용자 몸에 맞게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술로 기존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현실에서 보는 것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한 기술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 관련 연구 현장의 연구 성과나 과학기술 이슈를 연합뉴스 TV에서 많이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발된 햅틱 장치가 어떻게 화재 현장의 정찰 드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성과 관련 보도를 할 때는 좀 더 기술적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몇몇 고위직 자녀들도 그런 행위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공연을 하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에 맞춰 기사화를 한 것입니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 스파이더맨 슈트 관련 리포트에서 햅틱 장치가 어떻게 화재 현장에 정찰 드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다 저희가 다뤄서 궁금증이 없게 되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리포트라는 게 통상 1분 반에서 2분을 넘지 않다보니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다보면 벌써 몇 문장이 들어가 버립니다. 한 30초 이상 40초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제약 속에서 가급적 더 알아듣기 쉬운 리포트를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불황 속 쿠팡 나홀로 질주...유통업계 본업 강점 살린다'. 해당 보도는 최근 고물가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침체되어 유통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쿠팡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눈에 띄는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쿠팡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소개한 뒤, 쿠팡 관계자가 "다년간의 독보적인 투자와 고객의 쇼핑 경험 향상, 운영 탁월성에 집중한 결과 견고한 성장세와 수익성을 지속해 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기자는 '유통업계는 쿠팡과 직접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해왔던 쿠팡이 실적 향상은 물론 업계 1위까지 올라섰다는 내용의 보도는 소비자나 유통업계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쿠팡 관계자의 설명만으로는 쿠팡이 어떤 방식을 통해 흑자 전환 및 업계 1위까지 기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전반적으로 다소 추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한 인터뷰나 쿠팡이 제공한 편의 중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지 등 소비자들의 인터뷰가 더해졌거나, 다른 유통업체가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강화하는 것인지 전문가 또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 등이 이어졌다면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 구체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기자의 멘트 중 '유통업계는 쿠팡과 직접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라는 내용은,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쿠팡에 대한 홍보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자가 실제로 인터뷰를 한 내용인지 기자의 자체 판단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쟁에서 더 처질 위험이 있어 다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온라인 유통에서 최고 강자가 쿠팡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쿠팡에 그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됐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흑자 전환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리포트에서 붙여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통업계는 쿠팡과 직접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내용은 자칫하면 쿠팡에 대한 홍보 같은 보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가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기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시청자들이 좀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자 수가 적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해서 한 군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성희 위원

- '외국인 노동자를 모셔라' 경쟁...처우·관련법은 '글썸'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1/11),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산 연령 인구가 2020년부터 10년간 3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11.16. 기획재정부가 '비상 경제 장관 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이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시의적절한 보도였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차관, 경총 고용정책팀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등의 노력도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언급한 처우·관련법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등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 [라이프/취업] 그 많던 일손 어디로...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11.15), 앞서 언급한 탐사보도 내용과도 연결되는 보도였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나 '원하는 일자리만 찾는'이라는 표현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통계 조사 질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자리 맘에 들지 않아 쉽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해당 뉴스프리즘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조명하는 기획이었는데 제목과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담당하는 사회부에서는 11월 25일 날 뉴스 프리즘에서 말씀하신 그런 처우·관련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뤘다고 하네요. 분량이 모자라서 다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목을 처우·관련법까지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런 표현들, 구직의 어떤 미스매치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특정 세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이 사용 된 것 같습니다. 가뜰이나 세대 갈등도 심한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부추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용어 사용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연말이 다가오면서 10월말 이후로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보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재부, 한은, KDI, 산업연구원, IMF 등 여러 곳의 전망치 발표 내용들을 전달했는데요. 올해는 1.4%수준, 내년엔 2%내외 수준에서 전망되고, 고물가, 고금리, 수출상황,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 등 전망의 논거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포함된 것 같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올해 경제실적이나 내년 경제전망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뉴스를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예를 들어, 11월 19일에 IMF "한국, 2%대 성장... 전방위 구조개혁 주문'이란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당분간 2% 안팎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대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격차 축소, 혁신동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 당시가 아니더라도 한곳 또는 여러 곳의 경제전망과 대안들에 대해 좀 더 짚어준다거나 이런 대안들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현안을 진단하거나 풀이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방송에서 거시경제나 금융 부분은 참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풀어 설명해도 일단 한 번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숫자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후루룩 넘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경제 분야 보도가 오래 지속되면 채널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리포트는 좀 짧으니까 적당하게 거시경제 리포트 한 개 정도 끼워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게 연달아서 거시경제, 금융 분야 리포트가 2~3개 나가면 시청률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가급적 경제부에도 저희가 거시경제, 금융보다는 산업이나 소비자 경제 쪽으로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연말도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에 얘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시간에 리포트나 단신으로 이렇게 자주 내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대담은 저희가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경제전문가들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쉽게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채널만 하루 종일 이제 보시지는 않으니까 시청자들이 왜 저 채널에서는 저렇게 거시경제나 이런 것들이 짧게 소홀히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우 위원

10월 취업자 34만6천명 ↑ ... 석 달째 증가폭 확대(11.15), 취업자 증가폭이 몇 개월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경에 보도됐던 이번 뉴스를 보면서 고용률은 63.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20만 명대로 줄었다가 8월 이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의 멘트 중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고,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각 산업별 취업률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내용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막으로 잠깐 잠깐 통계치가 보이긴 했지만 뭔가 자세히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화면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이 뉴스 보도 이후에 오전 11시경에 '10월 취업자 34만6천명 ↑ ... 청년층 감소세는 지속', 오후 6시 경에 '취업자 증가폭 석 달째 확대...제조업은 줄어'와 같은 관련 뉴스가 연달아 추가 보도가 됐는데, 오전 뉴스를 본 입장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는 것 같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뉴스에서는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의 공식 의견을 전하는 장면 이후 전환된 화면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 취업자 수 증감폭'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12초 정도 계속 노출되면서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이 장면은 저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1분 동안의 청각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10초 남짓의 시각적인 정보 제공이 내용 이해에 더 효과가 컸을 것입니다. 연합뉴스TV가 어려운 소재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고, 이 점은 분명 칭찬할 점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정확하면서도 명확한 뉴스를 보도하는 공영 보도전문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지금처럼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처음부터 인포그래픽도 쓰고 자막도 상세하게 달고 하면 참 좋은데요. 아침 9시면 아마 발표한 직후일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이 전해진 후 저희 쪽에서 그래픽 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단신 나갈 때는 그래픽이 못 들어가고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그래픽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래서 경제 기사를 방송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단신으로 자막 처리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을 쓰더라도 그래픽이 단순하지 않으면, 그래픽 쓰나 마나 합니다. 그래픽 자체가 복잡하면 숫자도 많고 글자도 많고 해서 화면에 꼭 차 있으면 시청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래픽을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픽은 핵심적인 내용만 단순하게 담아서 시청자들이 언뜻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픽과 함께 나가면 좋는데 제작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손영준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시청자위원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장 시상식 개최 관련 회의(별건)

- 취지 및 결과

올 한해 동안 연합뉴스TV에서 방송되었던 우수한 리포트 및 프로그램(코너) 등을 시청자위원이 직접 수여자를 선정해서 상패와 부상을 드리는 행사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방송제작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2년 처음 제정하여 올해도 전통을 이어받고 또한 매년 정례화하여 '시청자위원장'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수상자에게 시상식때 상패와 부상을 준비하여 시청자위원이 공동 분담하기로 함

- 2023년 시청자위원장 선정자

- 시청자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견을 모아 소재형 기자 최종 선정

- 시청자위원장 시상식 개최

- 일시 : 2023. 12. 21.(목), 오후3시
- 장소 : 연합뉴스빌딩 12층 대회의실
- 내용 :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前, 소재형 기자 참석해서 수여식 진행